

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이재명 檢 불출석 가닥

비상의총서 결론, 박홍근 "李, 수용할 것"...본인 최종 결심 남아 "대통령 부부에 셀프 면죄부 남발"...특검 카드로 맞불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는 쪽으로 사실상 당내에서 가닥이 잡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는 등 최근 들어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한 특검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서 모습 자체가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출석하는 것이 당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게 의원들의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는 이미 어제 저버려 오 늘 오전 의견을 내놨다"라며 "(불출석해야 한다는 데) 지도부 의견도 일치했고, 중진들도 같은 의견

을 내놨다"고 전했다.

의총에서의 결정을 두고 이 대표 측은 통화에서 "본인의 최종 결심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을 요구한 취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소환 통보 등을 현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해 이에 맞서는 동시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결국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성명(169명 의원 일동)을 낭독하고 여권에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뿐이었다"며 "대통령 부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이라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수사에만 올인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이 실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외면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면 아무리 (여당) 법사위원장이더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을 기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대통령 추석 민심잡기 올인...보수층·중도층 구애 '투트랙'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밥상 민심' 잡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지지율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추석을 전후해 상승의 변곡점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만간 당 (국민의힘)이 안정되면 국정 지지도 회복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여름 휴가 복귀 후 일성으로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힌 뒤 전과

달라진 행보를 보여왔다.

우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발언을 가다듬었다. 즉흥 발언을 피하고 모두 발언 후 질문 한두 개만 받는 것으로 형식을 바꿔 리스크를 줄였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대대적으로 벌였다. 정책기획수석 신설, 새 홍보수석 영입에 이어 비서관급 증폭 교체, 일선 행정관 등 실무진 물갈이를 이어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비호감이 강했던 '윤핵관' 색채를 덜어내고 내부 권력 균형을 찾아 조직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 자평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외부 공개 일정을 가급적 줄이고, 최소 수행과 경호 인력만 대동한 채 수도권과 지방을 돌며 수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지속하기도 했다. 최근 윤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에서 보수 지지층을 붙잡는 동시에 서민과 취약계층에 다가서는 모습을 부각해 중도층을 함께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4주만에 다시 하락세

리얼미터...긍정 1.3%p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29일~9월2일(8월 5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낮아진 32.3%(매우 잘함 18.2%, 잘하는 편 14.1%)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8월2주차 조사에서 8주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30.4%로 반등, 8월3주차 32.2%→8월4주차 33.6%로 3주 연속 소폭 오름세

를 보였으나 4주 만에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1.6%포인트 높아진 64.9%(잘 못하는 편 10.1%, 매우 잘 못함 54.8%)로 조사됐다.

긍·부정 평가의 차이는 32.6%포인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역언론 위기는 지방자치 위기"

국회서 김윤덕 의원 주최 토론회 지역신문기금 존치 필요성 강조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지역신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길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주최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필요성"과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필요성에 대한 분석 토론회에서 "지역 언론의 위기는 지방자치의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의 10% 삭감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 기금 존치 필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열렸다.

최 회장은 "지역 언론은 지역소멸 시대와 디지털미디어 시대 속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지방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지역 언론이 없다면 지역 사회는 병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신문의 생존과 건강할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법을 제정했지만,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기금의 규모는 해마다 축소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기금 존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풀뿌리 지역 언론에서 시작한다"면서 "한국은 중앙언론이 발달한 구조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많다. 풀뿌리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을 격정해야 하는 시기에 지방언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줄어들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에 대한 건설적 토론회가 이뤄져 풀뿌리 목소리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영경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이 같은 지역신문 활성화 요구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 37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 언론과 전문가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